

효성, 음료용 3중다층 PET병 생산

아셉시스공법 활용 자외선·산소 유입 차단 ... 신선함 오랫동안 유지

효성이 자외선과 산소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두유용 3중다층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병을 공급한다.

효성(대표 조석래)은 무균충진공법인 아셉시스를 이용해 두유용 PET병을 공급한다고 4월14일 발표했다.

3중 멀티레이어(다층) PET병은 아셉시스공법을 활용해 자외선과 산소 유입을 차단하기 때문에 제품의 신선함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것이 특징으로, 빙그레의 <내 손안의 콩두유>용으로 공급하게 된다.

아셉시스는 무균 상태에서 음료를 만들어 PET병에 채워넣는 기술로 차, 곡물 음료, 우유 함유 음료 등에 쓰이고 있다.

효성 관계자는 “효성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무균충진시스템과 멀티레이어 페트병을 공급하는 설비를 함께 갖추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술개발을 계속해 다양한 음료를 신선한 상태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4/14>